

꿈이 이끌어 가는 인생<창세기40:1-23>

*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끌어 가는 인생을 살면 갖은 고난과 힘든 생활 속에서 낙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와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꿈에 붙잡혀 이끌어 가는 삶을 살기에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창세기 40,41장이 주는 교훈입니다.

1) 요셉의 꿈

보통 꿈이라고 하면 Dream 즉 성취, 목표, 인생의 이루고 싶은 소원을 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꿈 보다는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위한 비전, 구체적인 목표와 목적, 사명으로 승화되어야 합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해 지고 유익을 주듯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꿈을 꾸는 사람이 주님 앞에 가장 붙잡힌 사람이요 복된 사람이요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섭리와 계획과 영혼과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과 다윗과 바울과 예수와 같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과 꿈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슈바이처와 같이 하나님과 예수와 복음 없이 자신을 희생하며 자아실현하며 살아가는 사람, 알렉산더 징기스칸과 같이 자신의 야망과 욕망을 위한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 히틀러와 같이 사단의 꿈을 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시간이 억울함이 아니라 그 당시의 시대 상황으로 볼 때 오히려 복이 되었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시간이 되었듯이 우리의 아픈 상황과 잃어버린 시간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증거가 있다면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시간이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요셉 한사람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고 그 후 모세를 통해 구원사역의 모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과 교제와 관계가 아름다워질 때 요셉과 같은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런 요셉의 살리는 꿈,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꿈을 꾸며 코로나19가 여러분에게 복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2) 두 관원장의 꿈(40:9-22)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며 감옥에서 나가게 되면 자신을 기억해 주길 말하며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기도하지 않고 사람에게 의지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나중에 그것 때문에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요셉에게 꿈 해석을 듣고 술 맡은 관원장이 꿈에 부풀어 있을 때 함께 있는 떡 맡은 관원장도 요셉에게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하며 해석해 주기를 원하는데 조금도 가감 없이 사흘 후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니엘도 왕들의 꿈 해석을 할 때 눈치 보지 않고 그대로 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꿈, 살리는 꿈을 꾸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사흘 후 요셉의 꿈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습니다. 그런데 전직을 회복한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과의 약속을 잊어버리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가끔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게 무심하고 나를 잃어버린 것 같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징은 우리 기도의 무응답입니다. 그러나 이 무응답 속에 숨은 비밀을 알아야 실족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 영혼관리가 되어 있는 사람으로 그의 꿈은 긍정적이고 정치적으로도 죽을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이었으나 떡 맡은 관원장은 부정적이며 정치적 야망을 가지고 있는 영혼관리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게 믿음의 집안을 지키며 부모가 윤리와 도덕을 지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며 교회와 직장생활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질서와 원칙을 지키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가정의 자녀들은 믿음의 대가 이어가고 변성하며 꿈과 비전을 가지고

바른 선택을 합니다. 우리는 가문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복 받기를 원하고 자녀가 질뉘기를 원한다면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비전을 놓치지 않았던 하나님의 꿈 요셉의 꿈을 꾸십시오.

3) 살리는 꿈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 현상

살리는 꿈을 가진 사람들(요셉, 다니엘, 에스겔, 스룹바벨, 느헤미야, 다윗)에게는 9회말 2아웃 2스트라이크의 풀카운트에서 홈런을 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그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 현상은 첫째, 그 시대의 시세를 읽을 수 있으며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데(역대상12:32) 우리도 지금 이 시대를 확실하게 알고 분별하며 예배생활과 기도와 헌금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둘째,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밤에 부르는 하나님의 노래를 배우고 받습니다(욥기35:7-10) 사면초가의 상황에서도 좌절과 고통에 시달리는 이 밤에 주님은 찬송을 듣기를 원하시고 꿈의 사람은 찬송을 부르고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좌절과 고통의 시간이라 하더라도 하박국의 노래를 배우고 부르는 신앙의 실력자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셋째, 사면초가의 막힌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에 견디고 단련되어 순금이 됩니다(욥기23:8-10) 힘들고 절망스러운 어려운 이때 요셉의 살리는 꿈을 꾸며 하나님이 주시는 밤의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세를 알고 분별하며 마땅히 행할 길 예배와 기도와 헌신을 하며 사면초가 속에서도 벨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형통함의 은혜를 누릴 수만 있다면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할 줄 믿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끌어 가는 인생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